

전업작가부터 아마추어까지 ‘우리가 주인’

‘시민자유대학 미술제’...내일부터 21일까지 남구 서동 소암미술관

‘아름다운 시민, 미로를 거닐다’ 주제
초등학생부터 50대 33명 37개 작품
워크숍 결과 전시...기증 작품 경매도
“지속·발전 가능한 행사로 육성 계획”



왼쪽부터 최행준 전남대 교수, 최송아 시민자유대학 사무국장, 김태준 운영지원 담당.

‘미술’을 마주하는 사람들은 ‘전문가’와 ‘비전문가’라는 두 갈래로 스스로를 평가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미술은 공부를 해야만 향유할 수 있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 전시에서 어떤 작품을 봐도 자신만의 눈으로 작품을 해석하거나 나름의 표현을 자유롭게 내뱉지 못한다. 종종 ‘조절이 없다’는 말 뒤로 숨어버리기도 한다.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누구나 미술을 할 수 있다’고 알리는 자리가 마련된다.

시민자유대학이 15일부터 21일까지 광주 남구 서동 소암미술관에서 여는 ‘시민자유대학 미술제’가 바로 그것. ‘아름다운 시민, 미로(美路)를 거닐다’를 주제로 하는 이 행사는 시민이 직접 기획부터 창작, 비평 등을 하는 미술제로, 올해 시민자유대학의 첫 시도도 마련된다.

미술제 기획은 최행준 전남대 교수, 박구용 시민자유대학 이사장(전남대 교수), 최송아 시민자유대학 사무국장, 김태준 운영지원 담당 등이 맡았다.

미술제를 기획한 최행준 전남대 교수는 ‘평단이 없는’ 광주미술계의 한계를 제하고 이를 극복하는 대안적인 미술행사를 열자는 제안을 했다. 즉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미술제’를 만들자는 것이다.

13일 만난 최 교수는 “광주미술계는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분리돼 있고, 미술비평 또한 전시에 필요한 글을 제공하는 ‘주례사식 비평’에 머무르고 있다”며 “작가의 작품세계에 대해 손 소리도 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작가와 비평가가 발전하는 등 미술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에서 출발했다”고 강조했다.

미술제를 열기에 앞서 시민자유대학은 지난 9월부터 기획을 시작해, 지난달 3일 1차 워크숍을 열고 본격적인 시작을 했다. 초보부터 미술 교사, 전업 작가 등이 참여했고, 이 중에는 10명의 미술 전문가(교수·미술 교사·전업 작가)들이 포함돼 있다. 김용근 동강대 교수, 서기문·조성숙·최행준 전남대 교수가 중심이 돼 워크숍을 진행했다.



시민자유대학이 15-21일 광주 소암미술관에서 첫 미술제를 연다. 사진은 지난달 진행된 시민자유대학 워크숍 모습.

워크숍에선 작품 아이디어를 내는 것부터 마블링, 습지 채색 등 제작 기법까지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고 작품을 완성시켰다.

참가자들은 세 차례 워크숍의 결과물을 미술제에서 전시한다. 전업 작가들은 기존에 제작하고 있던 작품을 출품했다. 33명 작가가 참여해 37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장르는 회화, 사진 등으로 다양하다.

참가자 중에는 초등학생도 있다. 윤이진(11·살레시오초 5)양은 붉은 바탕에 꽃을 물고 있는 해골의 모습을 그렸다. 자신의 상황을 떠올리며 이 작품을 완성하고 ‘사춘기-비애와 희망’이라 이름 붙였다.

스스로를 ‘예술 문외한’이라 일컬었던 이기형(살레시오중 영어교사)씨는 집에서 자랐던 어린시절을 추억하며 ‘기다림, 그리움’이란 작품을 내놓았다. 배가 들어오면 함께 집으로 돌아오던 어머니를 기다리던 그때의 하늘 모습을 마블링 기법으로 표현했다.

건축가인 김동하 광주대 교수는 워크숍과 미술제를 통해 생애 첫 시도를 한다. 늘상 ‘펜화’만 그렸던 김 교수는 이번 전시를 위해 색채미술에 도전하고 ‘블루아워 광주’란 작품을 선보인다.

미술제에선 전시, 비평은 물론이고 경매도 이뤄진다. 송유미 작가가 기증한 작품 ‘잃어버린 시간Ⅱ’을 놓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비평과 담론을 나누고, 이름과 금액을 적어 내면 최고 가격을 매긴 사람에게 그림을 파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 미술시장에서 진행되는 방식을 탈피해 시민이 직접 작품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미술제 개막식은 15일 오후 6시30분 열린다. 이 자리에선 2시간여 동안 공연, 작품 감상, 즉석 비평과 경매가 진행된다.

최송아 사무국장은 “첫 미술제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향후 지속·발전 가능한 행사로 키워갈 계획”이라며 “미술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자유대학은 지난해 3월 개관해 철학·문학·음악·건축·미술·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과목을 개설해 학문과 예술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민립대학이다. 학기당 2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있다.(문의 062-961-1110)

/정겨울 기자 jwinter@kdaily.com



윤이진 작 ‘사춘기-비애와 희망’



김동하 작 ‘블루아워 광주’

암자 앞 눈에 놀린 애잔한 소나무 보고자함인데

장희구 박사 (258)
漢詩 향기품은 번안시조

민간에 유행하던 노래를 한시로 채록하는 소학부 열한 수를 선사하셨던 시인께서 산 중에서 눈이 소복하게 내리는 밤을 맞이했던 모양이다. 온 세상이 하얀 소복을 입고 황제의 국상을 맞이하는 깊은 밤이었을 것이다. 시인의 견기에 불편이 없도록 환하게 밝혀준 설야의 모습은 요즈음으로 말하면 전등을 방불케 했으리라. ‘종이 이불에 찬 바람 일으키 불등은 가물거리는데, 사미승은 하룻밤 내내 종을 울리지 않는다’면서 읊었던 시 한 수를 번안해 본다.

‘암자 앞 눈에 놀린 애잔한 소나무 보고자함인데’(山中雪夜)로 제목을 붙여 본 절언 절구다.

작가는 익재(益齋) 이재현(李齊賢·1287~1367)으로 고려 후기의 문신이자 시인이다. 원나라에 머무르는 동안 1316년 충선왕을 대신해 서쪽의 명산 아미산을 찾아 3개월 동안 머무르기도 했다. 그의 문집 제4권에 당시에 민간에 널리 유행했던 우리 노래 11수를 절언절구로 번안해 채록해 뒀다.

위 한시 원문을 의역하면 [종이 이불에 찬바람 일으키 불등은 가물거리는데 / 사미승은 하룻밤 내내 종을 울리지 않는다 // 묵어가는 객이 일찍 문 연 것 응당 성 내겠지만 / 암자 앞의 눈에 놀린 소나무를 보고자함인데]란 시상이다.

위 시제는 [산중에 밤에 내린 눈]로 번역된다. 산중에서 자고 일어나면 언제 내렸는나 실을 정도로 포근하게 눈이 내린 경우가 있다. 밤이 빠지고 때에 따라서는 교통이 두절돼 오고가지 못하고 꼼짝없이 갇히기도 한다. 설경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산중의 설경은 신의 조화를 연상하게 된다. 산중이면 다른 방법 없이 절을 찾아 하룻지녀를 묵을 수밖에 도리가 없었겠다.

시인은 사찰을 찾아 늦은 밤에 찬바람을

山中雪夜(산중야설)
익재 이재현

이불에 바람 일어 불등은 가물대고
사미승 밤 내내 종 울리지 않는구나
묵는 객 성 내겠지만 소나무를 보누나.

紙被生寒佛燈暗 沙彌一夜不鳴鐘
지피생한불등암 사미일야불명종
應嘆客開門早 要看庵前雪壓松
응탄숙객개문조 요관암전설압송



견디면 서
밤을 지새
우는 장면
을 경험하
게 된다.
‘종이처럼
얇은 이불

에 찬바람은 일고 사찰에 밝히는 불등은 가물거리기만 한데, 사미승은 하룻밤을 시각을 알리는 종을 울리지 않는다’는 시상을 이끌어냈다. 비록 방의 아랫묵은 따뜻할지는 몰라도 찬바람을 막아줄 만한 바람막이가 없는 것이 절집의 특징이다.

화자는 밤을 새워 날 새기를 기다렸다가 아침 일찍 절의 문을 열면서 시적인 반전을 시도한다. 하룻지녀 묵어가는 객이 일찍이 절문 여는 것을 응당 화를 내겠지만, 이는 오직 암자 앞의 눈에 놀려 꼼짝도 못한 소나무를 보고자 함이라고 했다. 엉뚱한 시적인 반전이 시도돼 시상의 격을 높이고 있다.

※한자와 어구

紙被: 종이 이불. 生寒: 찬바람이 일다. 佛燈暗: 불등이 가물가물하다. 沙彌: 사미승. 一夜: 한 밤에. 不鳴鐘: 종을 울리지 않다. // 應嘆: 응당 성내겠다. 宿客: 묵어가는 객. 開門早: 일찍 문을 열다. 要看: 보고자 하다. 庵前: 암자 앞. 雪壓松: 눈에 놀린 소나무.

/시조시인·문학평론가 새한국문학교육연구원 이사장

임방울국악교실 수강생 송년국악공연

18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장당

임방울국악진흥회 국악교실 수강생들이 오는 18일 오전 11시 광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극장에서 송년국악공연을 마련한다.

관소리반은 임방울 선생의 ‘진양조의 추억’, 무용반은 ‘화선무’와 ‘살풀이춤’을 선보인다. 판소리 강사 소민영 명창은 임방울 선생의 애창곡

‘쑥대머리’, 고법반은 ‘고법합주’(진양·중머리·중중머리)를 연주한다.

임재현 명창은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 대목을, 김찬미 명창은 판소리 ‘심청가’ 중 ‘심봉사 황성 올라가는 대목’을 들려준다. 민요반 수강생들은 흥겨운 남도민요 ‘내고향 흥을시구’ 등을 선사한다.(문의 062-673-0731)

/정겨울 기자 jwinter@kdaily.com

광주 즉석 메밀막국수와 찜숯불고기 한곳

메밀가루 직접제분, 메밀면 직접 뽑고, 들기름, 장기를 직접 찌고 육수, 비빔장, 열무김치, 동치마, 직접 담글다.

즉석메밀막국수 6천5백원
즉석메밀묵이버섯들기름막국수 7천5백원
즉석메밀막국수찜숯불고기정식 1만4천원
찜숯불고기 200g(살고기만) 8천원
춘담한마리묵은지달도리 1.5kg 3만원
안방촌닭백숙 1.7kg이상(예약필수) 4만원

점심특선
조리장 왕불고기 쌈밥 / 7천5백원, 닭개장 / 6천5백원

※ 저자는 메밀가루메밀면비빔장육수김치를 사오지 않습니다.
※ 메밀막국수 2시간 찜숯불고기 채광 숯불고기 2시간 막국수 1,000원 할인

※ 다른업소 메밀막국수와 찜숯불고기 비교 필수

제주날달
예약필수 (062) 373-0055
광주광역시 서구 마북북계로 70 (마북동165-62)
도시철도공사(세정아울렛 건너편) 주차장 뒷길 3층건물 1층

뜨는명소
계절제철음식 정식코스요리

- 맛과 분위기는 일식집
- 가격은 횡집
- 편안한 식사환경
- 계절제철 식자재로 모든음식
- 반찬 직접 조리합니다.
- 숙이 편안합니다.

미가정식 1인 2만원 (3인부터 주문 가능)
제철정식 1인 2만5천원 (3인부터 주문 가능)
큰상차림 1인 3만원 (3인부터 주문 가능)
VIP상차림 고객 맞춤 주문 메뉴, 가격상당

※ 정식코스 상차림에는 메밀막국수를 드립니다.

계절제철 코스요리 명가 **제철미가**

예약필수 (062) 376-3344
광주광역시 서구 마북북계로 70 (마북동165-62)
도시철도공사(세정아울렛 건너편) 주차장 뒷길 3층건물 2층

바로 이곳 2층입니다.
다양한 룸(4, 8, 12, 16, 20석)
대형 단체석(50, 100, 150석).
주차장 매우넓고, 대리 바로 옴

전통 남도 한정식의 명가! **가족회관**

南道の 魂
자연의 흐름을 담은 제철 식재료는
어떤약보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 한정식 1인 : 2만 5천원부터 ~ 10만원까지 <맞춤형 주문가능>

저녁특선 2만원(3인 이상)
점심특선 한정식(1인 20,000원, 3인 이상 18,000원)

▶ 결혼피로연, 각종모임, 상견례 전문, 맞춤형 가격 주문가능. ▶ 가족회관: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159-15 (동명교회 옆) ▶ 예약전화:062222-3845 (가족회관 건너편 대형주차장 완비)